

“김상도씨 살인사건에는 4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라고 강오룡 경감은 말했다.

강경감은 동해안의 휴양지인 삼진포경찰서장이다. 그는 서장실에서 저명한 범죄학전문가인 최율교수에게 김상도씨 사건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최율교수는 그의 제자였던 강서장의 요청으로 그날 아침 비행기편으로 삼진포로 날아온 것이다.

강서장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물적 증거로 볼 때 이 4명의 용의자중에서 어느 한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인을 추리는 일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밝히는 일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최교수는 강경감이 사건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메모를 하고 있었다. 죽은 김상도씨는 80년대 후반 모래사장에 불과하던 이곳 해변가에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삼진포리조트사를 운영하면서 한밑천 단단히 잡은 건설업자였다.

“김상도씨는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최교수는 물었다.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공정했습니다.” 강서장은 이어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밤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휴양지의 중심에는 김상도씨가 공을 들여 지은 마을회관이 있다. 이곳에는 수영장과 바, 사우나와 당구장 그리고 카드놀이방이 있다. 이곳은 이 휴양촌에서 꽤 인기있는 곳이기도 하여 한여름 밤에는 수백명의 휴양객들로 웅성웅성한다. 이 회관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고 잠시 문을 닫은 다음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다시 영업을 한다.

“그런데 김상도씨가 살해된 것은 밤 11시와 11시 45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 강서장은 말했다.

“강서장,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최교수가 물었다.

“우선 이 사건의 혐의자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장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4명의 용의자는 유일주씨, 고이문씨, 안삼열씨 그리고 정사달씨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김상도씨를 도와 이곳 리조트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일주씨는 콘도미니엄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 고이문씨는 보수책임자이고 안삼열씨는 법률고문 그리고 정사달씨는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김상도씨는 밤 11시에 회관문을 닫은 뒤 그의 사무실에서 그

날 사업을 결산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밤이 네사람은 늘 하던 식으로 그날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김상도씨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 들이는 것을 기다리면서 카드놀이 방에서 포커놀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도씨는 언제나 그의 사무실에서 카드놀이방으로 전화를 걸어 한사람씩 불러 들이곤 했습니다.”

강서장은 최교수에게 폐점시간에 회관 안에는 이 네사람 말고도 세사람이 더 있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 김상도씨의 부인 김순자여사는 바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밤 11시에 퇴근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언제나 늦게까지 일하기

## ■ 함께 푸는 미스터리〈V〉

# 휴양지의 살인사건과 4인방

### 최교수의 증거란 무엇이며

때문에 남편보다 일찍 퇴근한다. 그녀외의 두사람은 마을회관 관리부장인 변오해씨와 야간담당 경비인 양육씨다. 변오해씨는 퇴근전에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양육씨는 근무하기 위해 막 출근하던 참이었다.

김순자여사가 막 떠난 뒤 변오해씨는 카드놀이방에서 다른 네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변오해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고 말하는 소리를 네사람은 들었다.

수화기를 내리면서 변오해씨는 네사람에게 김상도회장이 10분내에 사무실로 호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밤 11시 50분에 변오해씨 등 다섯사람이 방금 김상도회

장이 회관안 그의 사무실에서 살해된 것을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윽고 강서장은 최율교수에게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경찰서를 나와 마을회관 쪽으로 걸어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곧 마을회관으로 달려 갔습니다. 김상도씨는 책상위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의 목에는 넥타이가 감겨져 있고 뒤에서 힘껏 잡아 당겨 질식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책상 뒤쪽에 있는 금고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 누가 김상도씨를 살해했나

이곳 회관에서는 김상도씨가 막대한 액수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려진 사실인데 경찰이 나중에 돈을 옮길 때 세어 보니 2억원도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강서장의 말에 따르면 6명의 남자들은 그날 밤 함께 문을 부수고 시체를 발견하기 전에는 아무도 김상도씨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강서장은 경찰청 감식전문가들의 지원을 요청한 결과 김상도씨의 사무실에서 지문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글라스와 양주 한병이 있었다. 그중의 한 글라스에는 죽은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었고 다른 하나의 글라스에는 정사달씨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양주병에서 회수된 지문은 고이문씨의 것이었다. 사무실에서 발견된 종이 성냥과 안쪽

의 무인은 유일주씨의 무인과 일치했다. 캐비닛 꼭대기에서 발견된 부탄 라이터에는 안삼열씨의 지인이 있었다. 그러나 변오해씨나 양육씨의 지문은 사무실 아무데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네사람은 한결같이 그날 밤 김상도씨 사무실에 들어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강경감은 다시 말을 이었다. “문제는 밤 11시와 11시 45분 사이에 네사람 모두가 한번 이상은 카드놀이 방을 나갔다는 점입니다. 정사달씨와 변오해씨는 화장실로 갔다는 것이고 안삼열씨는 바에 있는 냉장고로 맥주를 가지러 갔다는 것입니다. 고이문씨는 바로 나가서 그곳 유료전화를 사용하여 집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입니다. 유일주씨는 바로 나가서 그곳 자판기로부터 담배 한갑을 가져 왔다는 것입니다” 강서장이 말을 맺었을 때 이들은 회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최교수는 바로 들어가면서 획 방안을 돌아 보았다. 거기에는 긴 마호가니재목의 바와 붉은 체크무늬 형겹을 씌운 테이블들 그리고 강서장이 언급한 유료전화와 자판기가 있었고 회전식당구기와 던지기화살표적과 화살들이 있었다.

최교수와 강서장은 바에서 나와 당구장과 카드놀이방을 지나 살인사건이 일어난 김상도씨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창문은 바깥쪽이 쇠막대기로 보호되어 있었다.

“살인에 사용된 넥타이는 김상도씨 것이었습니다.” 강서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김상도씨는 책상에서 일할 때 언제나 넥타이를 풀어서 의자에 걸쳐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무슨 이유로 돈을 그대로 남겨 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네사람의 용의자는 있지만 이들이 푹푹 뭉치면 사건은 영영 해결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감은 매우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최율교수는 한참만에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증명할 길은 하나 있소. 점검할 것이 한가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찾은 것이 발견되면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갖게 될 것이요.”

최교수의 증거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가 김상도씨를 살해했을까?

〈春堂人〉

미스터리 해답은 99쪽 참조